

##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 2006년도 제20차 회의

1. 일 자 2006년 9월 21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성 남 위 원 (의장직무대행)  
강 문 수 위 원  
이 덕 훈 위 원  
이 승 일 위 원 (부총재)  
심 훈 위 원  
박 봉 흠 위 원
4. 결석위원 이 성 태 의 장 (해외출장)
5. 참 여 자 남 상 덕 감사 박 재 환 부총재보  
김 수 명 부총재보 윤 한 근 부총재보  
김 병 화 부총재보 정 해 왕 금융경제연구원장  
김 재 천 조사국장 이 주 열 정책기획국장  
장 병 화 금융시장국장 정 이 모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장 세 근 공보실장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 <의안 제35호 —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06년 9월)>

(1) 2006년 9월 7일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의안 제35호-「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06년 9월)」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됨에 따라 주관위원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심의위원회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06년 9월)」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많은 토론과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보고서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음

먼저 금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음

첫째, 대상기간중 세 차례에 걸쳐 콜금리 목표가 조정되었으므로 금리정책 결정배경 및 시장반응을 중점적으로 기술; 둘째, 하반기 경제전망은 조사국 전망치를 기초로 최근 경제여건 변화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기술; 셋째,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을 유지하면서 경기동향에 유의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임을 밝힘; 넷째, 2007~2009년중 중기 물가안정목표 설정내용을 기술하였음

심의위원회의 주요 수정·보완사항을 살펴보면,

“개요” 부분에서 주요 금융기관의 단기수신비중 하락이 콜금리 목표인상 이외에 MMF제도 변경 등에도 기인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일부 문구를 조정하였음

원화환율 동향과 관련하여 원화강세의 부정적 영향을 수출부문 중심으로 기술하는 방향으로 관련문구를 수정하였음

세계경제 성장전망 및 기타 국제원자재가격 전망을 반영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최근의 국제유가 동향을 반영하여 유가전망을 수정하였음

새로운 물가안정목표 설정내용과 관련하여 2009년까지의 물가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관련문을 삭제하였음

관련 “개요” 부분의 수정내용을 “본문” 부분에 반영함과 아울러 보고서 부의 이후 통계자료의 추가 보완이 이루어진 부분을 수정하였음

(2) 심의결과

심의위원회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06년 9월)(심의위원회안)

<한국은행 홈페이지 - '통화정책'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참조>

**<의안 제36호 — 2006년도 4/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

(1) 담당부총재보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취급 원활화를 위하여 2006년 4/4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2006년 3/4분기 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 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총액한도대출의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를 결제지원한도 및 일반한도로 구분하는 이유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관련규정에 의해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차원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업어음할인은 결제지원한도로 무역금융, 소재부품생산자금은 일반한도로 분류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06년 4/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9조 6,000억원으로 정한다.

**<의안 제37호 — 2006년도 4/4분기 한국은행 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 결정>**

(1) 담당부총재보가 금융기관의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 4/4분기 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를 2006년 3/4분기 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 설명을 하였음

(2)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06년 4/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조절대출한도를 5조원으로 정한다.